

건설업 보증 및 용자제도 발전방향 연구

1963년 건설업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설립된 건설 보증 전문 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최근 개방화·자유화 시대를 맞아 금융시장 및 건설시장의 대내외 개방, 급격한 건설업 부도의 증가와 이에 따른 조합 경영의 악화, 연대보증 인제의 폐지 혹은 완화, 조합출자 임의화 같은 심각한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공제조합은 보증전문 금융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여 조합의 진로를 새로이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건설 보증 전문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제조합의 특성에 비추어 출자금의 성격과 이에 따른 자산 운용의 기초를 제시하였고, 보증 전문 기관으로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제도 및 보증계약준비금제도의 도입을 통한 회계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자금의 성격 및 자산 운용 기초가 바로 정립될 때에만 조합 업무 개선의 기본 방향이 바로 설정되고, 장기적으로 조합 경영의 안정성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조합의 대내외 공신력을 높여 건설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합원들에게도 보다 많은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보증 업무 개선과 관련하여 지난 5년 간의 보증 영업 실적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보증 효율의 산정 방식을 제시하면서 효율 변경 요인을 찾아봄으로써 조합 보증 업무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보증 업무의 핵심인 신용평가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서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부도 업체의 실태와 관련한 자료 분석을 통하여 보증 업무와 관련한 시사점도 도출하고 있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자인 조합원의 출자로 이루어진 만큼, 조합원 스스로에 의한 조합 운용 기초와 업무 방안과 관련한 공감대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